

일본 도쿄도의 ‘하우징 퍼스트’ 시책에 대한 평가와 가능성

- 「홈리스 지역생활 이행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Possibilities and Evaluation of the Tokyo Metropolitan 'Housing First' Program -Focusing on Its "Support Program for Helping the Homeless Reintegrate"-

전창미* 전홍규** 이나다나나미*** 남원석**** 타지미사콘*****
Jeon, Chang-Mi Jeon, Hong Gyu Inada, Nanami Nam, Won-Seok Tajimi, Sak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Support Program for Helping the Homeless Reintegrate—a separate program from the homeless supporting system in which Tokyo Metropolitan is emphasizing the existing job-producing support— and its significance and possibility.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was performed a literature review of the summary of the project and conducted an interview survey for private organizations(social welfare corporation, NPO corporation, etc.) which were involved in the project, and its users. This research looked into the importance and effect of Housing First Policy which is putting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the personally needed support(life support, and work-finding support) after having to secure housing more preferentially than anything else in order for the homeless to keep up a stable living in supporting the homeless. According to Tokyo Metropolitan, 81.6% of the homeless, who were actually involved in this project, were found to make their living continuously at a district based on self-support through finding work and livelihood protection benefits, etc., thus being able to confirm its politic possibility; however, there still remain some issues to be solved in such as, housing level and continuous support of finding work.

Keywords : Housing First, Homeless, Support Program for Helping the Homeless Reintegrate

주요어 : 하우징 퍼스트, 홈리스, 홈리스 지역생활 이행지원 사업

1. 서론

한국에서는 1997년 말 경제위기로 인해 노숙인이 급증한 이래 초기의 「응급보호」에서 「자활사업」으로, 즉 「보호에서 자립으로」 본격적인 지원시책이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서비스 영역을 넘지 못하는 지원책이었고 「주거」라는 시점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면서 「주거」와 「서비스」의 통합모델에 주목하여 거리나 쪽방·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빈곤층에 대하여 민간주택시장의 주택을 매입 혹은 임차한 건물을 영구임대주택에 준하는 조건으로 주거빈곤층의 생활자립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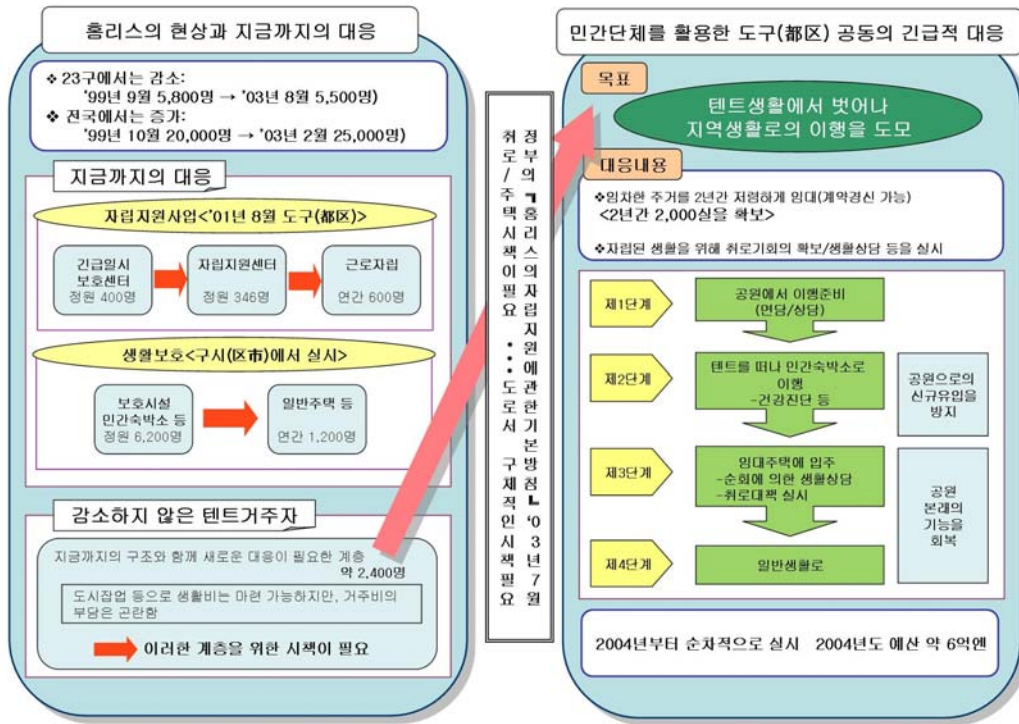
한편, 일본에서는 2002년 8월 「홈리스의 자립지원 등에 관한 특별홈리스자립지원법」(이하 「홈리스자립지원법」)이 제정된 후 정부의 「기본방침」이 제시되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시책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 홈리스를 위한 실시계획을 책정하게 되었고, 2006년 1월 기준 도쿄도(東京都), 오사카부(大阪府), 사이타마현(埼玉縣) 등 25개 지자체²⁾에서 실시계획을 책정하였다(中島明子, 2005). 즉, 「홈리스자립지원법」 제정을 시작으로 홈리스 자립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기 시작 하였다.

일본에서 주택을 상실한 사람들(홈리스)을 위한 정책적 접근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일정정도 변화를 거치며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도쿄도(東京都)의 「홈리스 지역생활 이행지원 사업」은 2004년 사업을

*정회원(주저자), 일본오사카시립대학 생활과학연구과 주거환경학 전공, 박사과정
**정회원(교신저자), 일본오사카시립대학 도시연구플라자, 준교수
***정회원, 일본오사카시립대학 도시연구플라자, G-COE 특별연구원
****정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정회원, 일본오사카시립대학 생활과학연구과, 교수

1) 2004년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사업」 300호 실시 및 2009년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등이 있다.
2) 실시계획을 책정한 광역 자치단체는 사이타마현(埼玉縣), 치바현(千葉縣), 도쿄도(東京都), 오사카부(大阪府), 카나가와현(神奈川県), 시즈오카현(静岡県), 아이치현(愛知縣) 등의 25개 지역으로 이러한 지자체의 경우 주택을 상실한 사람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논문은 2009년도 일본 재단법인 제일주택건설협회의 연구비 지원(연구책임:전홍규, 오사카시립대학 준교수에 의해 연구되었음.



*참조: 동경도 홈페이지(www.metro.tokyo.jp)

그림 1. 도쿄도 홈리스 지역생활 이행지원사업의 추진 개요

시작하여 가장 최근에 완료된 도·구(都區) 공동사업으로, 기존의 시설수용 중심의 지원정책과는 달리 거주보장을 최우선시 하는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 시책」³⁾으로 이전의 정책과는 상이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시도되었던 도쿄도의 홈리스 지역생활 이행지원 사업의 추진 배경과 개요, 내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 민간단체와 임대아파트 이용자의 조사를 통해 도쿄도의 대처방안을 평가하고 향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도쿄도 홈리스 지역생활 이행지원 사업

2.1 도쿄도 홈리스 지원 체계

2000년 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전까지 도쿄도가 실시한 홈리스 지원사업⁴⁾은 각 구의 복지사무소에서 담당,

3) 「하우징 퍼스트 시책」이란 홈리스 지원에 있어서 무엇보다 거주보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후,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과제(건강회복, 부채 등의 문제해결, 취로, 생활자립, 인간관계의 구축, 삶의 목표 만들기 등)를 겸비한 지원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中島, 2006).

4) 2009년 9월에 발표된 「홈리스 지원 등에 관한 도쿄도 실시계획(제2차)」에 따르면 도쿄도(東京都) 23구(區)의 홈리스 수의 추이는 2003년 5,365명, 2004년 4,619명, 2005년 3,773명, 2006년 3,402명, 2008년 2,611명, 2009년 2,3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의 홈리스 수는 2009년 1월 기준 15,759명으로 조사되었고, 오사카부

노동이 불가능한 홈리스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신청, 응급 조치로서 갱생시설, 숙박제공시설, 숙박소 등을 소개·제공 등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노동이 가능한 비교적 젊은 계층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이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센터가 제안되었다(野村, 2001)(표 1 참조).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마련된 자립지원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은 홈리스들이 자립지원센터를 거쳐 사회로 복귀 별도경로와 생활보호수급에 의해 주택보호로 이어지 별도경로로 구성되었다. 전자가 노동능력이 있어서 근로를 통해 자립이 가능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경로라면, 후자는 질병, 고령 등으로 근로를 통한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을 위한 지원경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에서도 나타나듯 2001년 기준 근로를 통해 자립한 수가 연간 600명이고, 생활보호수급을 통해 연간 1,200명이 민간의 일반주택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으로도 포괄하지 못하는 홈리스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는 별도의 지적이 있어왔다. 바로 일용직, 고물수집 등을 통해 생활비 마련은 가능하지만 주거비 부담이 불가능한 홈리스로 공원이나 하천변에서 텐트 등을 설치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에 도쿄도가 자립지원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곤란한 홈리스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시스템을 보완·확충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 6월부터 「홈리스 지역생활 이행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大阪府)가 4,302명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가 도쿄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도쿄도의 홈리스 자립지원 시책의 흐름

시기	내용
2001년 8월	긴급일시보호센터, 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도쿄도의 독자적인 홈리스 「자립지원 시스템」의 대응책을 개시(자립지원 사업은 2000년에 개시)
2003년 7월	「홈리스 자립지원 등에 관한 특별홈리스자립지원법 실시계획」의 기본방침에 근거한 실시계획의 책정
2004년~2009년	「홈리스 지역생활 이행지원 사업」의 개시

*자료: 도쿄도(2007), 도쿄홈리스 백서Ⅱ, 정리.

2.2 홈리스 지역생활 이행지원 사업의 개요 및 평가

홈리스 지역생활 이행지원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사업목적】

첫째, 부득이하게 공원에서 텐트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쿄도가 임차한 아파트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공원에서 정주하고 있는 홈리스의 수를 감소시켜 공원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업내용】

한 달에 3,000엔의 저렴한 「임대료」로 민간아파트 또는 도영(都營)주택 등 임차한 주택을 제공하여, 2년간 정기임차계약으로 입주하는 것이다(2004, 2005년도 입주자는 1년 재계약 가능). 또한, 자립을 위한 취로상담과 생활상담을 실시한다.

【사업의 흐름】

먼저, 이행준비를 위한 단계로 공원 등에서 면접과 상담 등을 통하여 이주를 결정한 사람들은 민간숙박소로 이주한다. 민간숙박소에서 머물며 건강진단, 목욕, 구직등록, 아파트 임대차 계약 등을 실시하며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그 후 임대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는데 입주 후에는 지원단체가 순회하면서 생활상담과 취로지원 등을 통해 사후지원(after care)을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인 일반생활로 복귀하게 된다.

【사업기간과 대상지역】

초기 홈리스 지역생활 이행지원 사업은 2004년 6월부터 시작하여 2년간 2,000호의 주택을 제공하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기획되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① 2004-2005년도 ② 2006-2007년도 ③ 2007-2009년도 등 제3기로 구분되어 각 시기별 2년간 실시되었고, 2009년 8월에 제3기 사업이 종료되었다. 하지만, 취로를 통해 자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는 생활지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 2010년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 종료된다.

초기 사업대상 지역은 텐트에서 생활하는 홈리스가 집중적으로 분포된 신주쿠 도야마공원, 요요기공원, 우에노공원, 신주쿠 추오공원, 스미다공원 등 5개 공원이며, 신주쿠 도야마 공원의 홈리스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각 시기에 따라 대상지역과 공원 등 장소가 달라지고 확대되어 감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공원에서부터 이행실적(2007년 8월 16일 현재)

년도	대상지역과 공원
제1기 (2004-2005년도)	도립·구립의 주요 5공원(도야마(戸山), 요요기(代々木), 우에노(上野), 신주쿠추오(新宿中央), 스미다(墨田))
제2기 (2006-2007년도)	9구 6지역(스미다강 유역(隅田川流域) 4區, 고토우(江東), 에도가와(江戸川), 시부야(澁谷), 나가노(中野), 이타바시(板橋))
제3기 (2007-2009년도)	스미다 유역 북부(墨田流域北部), 세타가야구(世田谷區), 네리마구(練馬區)

*자료:中島 외 3인(2008.9), 「홈리스를 위한 지원으로서의 하우징 퍼스트에 관한 예비적 연구」 p.1498 인용.

【지원내용】

본 사업의 지원내용은 크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취로지원 등 3가지로 구분되며, 이 세 가지 지원이 한 세트가 되어 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지원은 도쿄도가 각 지역별·영역별 지원업무를 담당할 민간단체 12개소를 선정하여 위탁하였다(표 3 참조).

표 3. 홈리스 지역생활 이행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기관

생활지원 (8단체)	◎(사)도쿄사회복지사회, ◎NPO신주쿠홈리스지원기구, ◎NPO후루사토회, ○중고년사업단 야마테기업조합, (사)유린협회, (사)신영회, (사)도쿄원호협회, (사)특별구 인사·후생사무조합 사회복지사업단
주거지원 (2단체)	NPO임대인협회(地主家主協會), (사)도쿄복지회
취로지원 (2단체)	JOB 스테이션 동부사무소, JOB 스테이션 서부사무소

*설명:◎는 실제로 거리에서의 홈리스지원 경험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며, ○는 자립지원 사업 등으로 홈리스 지원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함.

**자료: 稲田(2009.9.17), 한국·일본·홍콩 주거복지정책의 동향과 평가, 주택정책세미나 발표자료, 인용.

각각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지원: 생활상담, 건강 상담, 복지상담, 채무정리, 취로의 지속적인 지원, 안부확인 등이 있다.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3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취로를 통해 자립을 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주거지원: 도(都)가 임차한 아파트 약 2,000호를 사업참가자에게 월 3,000엔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조건은 ① 방 규모 4.5~6조(疊, 약 3평) 정도, ② 간단한 부엌이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공동 화장실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③ 욕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혹은 걸어서 15분 이내 목욕탕이 있는 곳, ④ 주택의 위치는 가장 가까운 역에서 도보로 15분 이내 위치, ⑤ 월임대료 상한은 50,000엔(공익비 포함) 정도이다. 그리고 도쿄도의 또 하나의 조건은 지역생활에 친숙해지기 위하여 1동 전체를 매입하는 것

은 금하였다.

· 취로지원: JOB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구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자립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와 관련해 도쿄도는 6개월간 도립공원이거나 시설청소 등의 일자리를 임시취로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주요업무들을 그동안 홈리스 지원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해온 민간단체들(사회복지법인, NP O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점 또한 홈리스 지역생활 이행지원 사업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사업실적】

각 시기의 실적은 <표 4>와 같다. 동경도(2007) 발표에 따르면, 제1기에는 사업 대상자 1,773명 중 이용자 1,190명으로 사업 참가율은 67.1%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대상 지역에 존재하던 텐트 수도 1,237호에서 241호로 줄어들었다. 이용자 1,190명 중 305명(25.6%)이 생활보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입주 후의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입주자의 평균연령은 56세, 취로 중인 사람은 60%, 주민등록을 한 경우가 58%,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9%, 취로지원 등에 의해 월 13만엔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14%, 주민등록을 한 결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이 6%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완료된 제2기의 사업 대상자는 778명 중 이용자가 446명(57.5%)이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제3기 사업 대상자는 330명 중 이용자는 309명(93.6%)이었다. 사업 이용자 중에는 도중에 실종, 도중퇴실, 귀향, 사망 등의 이유로 도중에 사업이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

반면, 도쿄도가 발표한 자료에는 2009년 1월 말 현재까지의 사업 중간정리 자료를 보면, 본 사업을 이용하여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 중에서 약 90%정도가 지역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주쿠 도야마 공원과 신주쿠 중앙공원에서 이행한 이용자는 전원이 사업기간이 종료되었는데 그 중 85.5%가, 또는 전체 이용자 1,945명 중 사업이용 종료자 1,212명 중 81.6%가 지역에서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우스링 퍼스트 시책으로서의 중요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 공원으로부터의 이행실적(2007년 8월 현재)

년도	사업 대상자	이용자(참가율)
제1기(2004-2005년도)	1,773명	1,190명(67.1%)
제2기(2006-2007년도)	778명	446명(57.5%)
제3기(2007-2009년도)	330명	309명(93.6%)
전체	2,860명	1,945명

*자료: 도쿄도(2007, 2009)와 中島(2008)의 내용을 재구성.

Ⅲ. 임대아파트 입주자 및 민간단체 실태조사 실시

3.1 조사방법

도쿄도(東京都)의 「홈리스 지역생활 이행지원 사업」에 관한 조사는 관련된 모든 사업위탁단체 12개소 및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거주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을 수 있었던 13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질

적 조사(인터뷰 조사) 수법을 활용하였고, 조사기간은 2009년 7월 9일에서 7월 14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반구조적인 인터뷰조사법을 활용한 이용자 라이프 히스토리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항목에 대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조사는 연구자 3-4명이 팀을 이루어 직접 이용자의 주택 혹은 민간위탁단체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허락을 얻어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홈리스 지역생활 이행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용자 중 인터뷰를 실시한 13명 중 대표적인 사례로 5명의 조사 대상자의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표 5. 이용자 인터뷰 조사항목

구분	내용	
일반사항	성별, 연령, 결혼유무	
주택공공 직전상황	주택	주택상실 이유, 주택상실 이전 주택특성
	직업	직업의 유무, 직업종류 및 업종, 고용형태, 고용보험 유무, 공적연금 유무
임대 아파트 입주 이후	입주 계기	입주날짜, 입주계기, 입주직전 거주 장소 및 생활, 주택 비거주 기간
	건강 상태	현재 질병유무 및 통원, 지병유무 및 종류,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유무, 장애수첩, 건강보험 유무
	직업	취로 유무, 취로희망 유무, 현 직종 및 업종, 현 고용형태, 고용보험 유무, 공적연금 유무
	소득	현재 수입, 입주 이후 수입변화, 생활비 및 만족정도
	주택특성	방 규모, 설비, 현 주택에서의 불편사항 등
	인간관계	가족과의 연락, 곤란상황 발생시 상담대상, 현 주택에서의 이웃관계, 근린지역에서 빈번히 이용하는 상점과 장소
	지원내용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원내용 및 희망하는 지원내용 등

3.2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실태

조사 대상자와 인터뷰를 통하여 그들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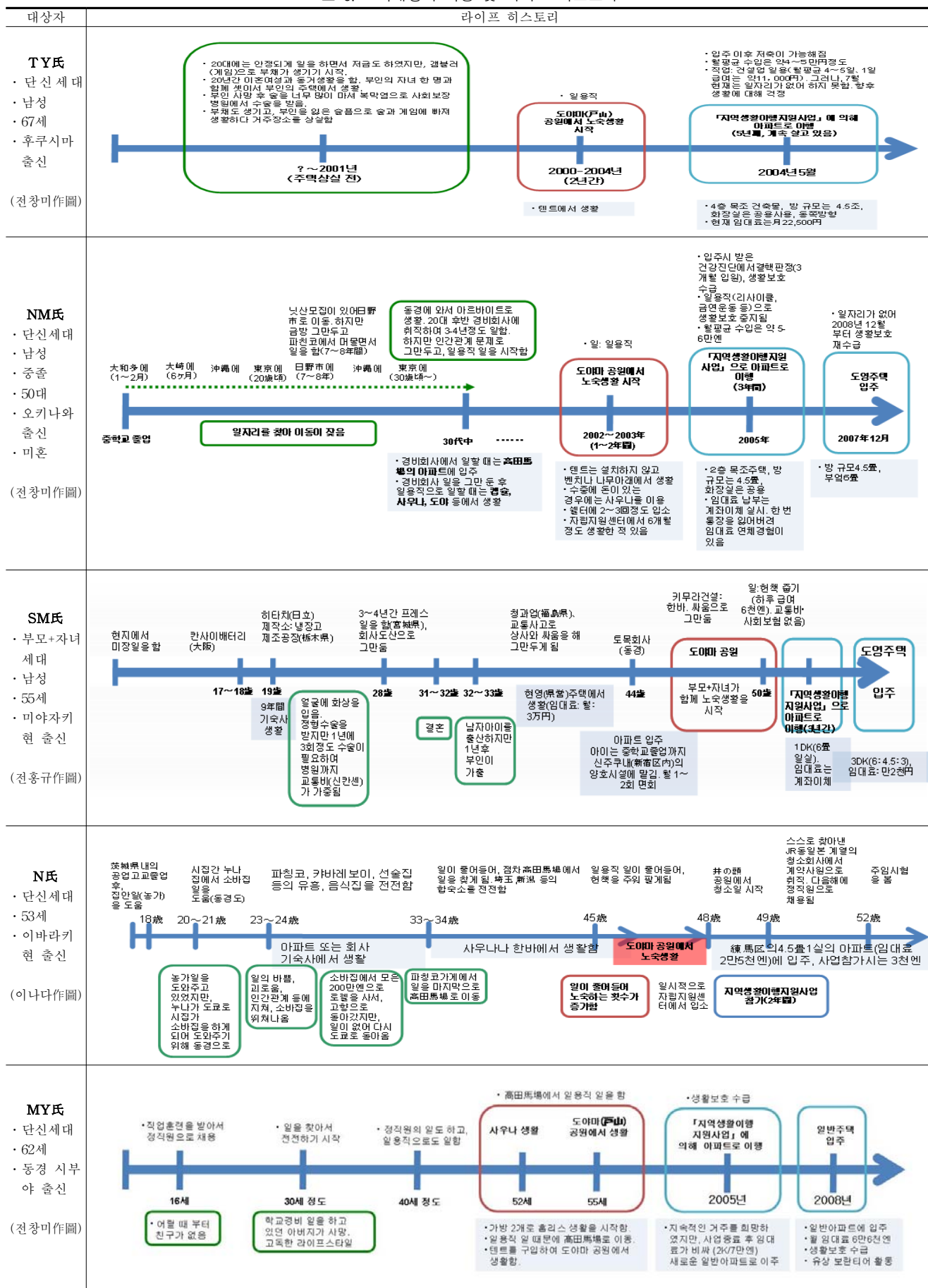
1) 주택공공에 처하기 이전

부모의 사망, 이혼, 재혼 등을 겪으며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나, 성인기에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일자리가 안정되어 있더라도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되거나, 인간관계 문제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해 구직·실적이 반복되거나, 학력이 낮아 임금이 낮고 육체적으로 고된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수입이 적어지고, 그 결과 임대료 연체를 통해 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거를 상실한 후에는 캡슐호텔, 사우나, 인터넷 카페, 합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홈리스 생활 시기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대상자 모두 도야마 공원

표 6. 조사대상자 특성 및 라이프 히스토리





a) 공원의 블루텐트 b) 벤치에서 정주 c) 나무 아래에서 정주
사진 2. 도야마 공원의 노숙생활 형태(2009.7 촬영)

에서 홈리스 생활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단신생활자였고,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세대도 있었다. 공원에서 거주방식은 블루 텐트를 설치하거나 텐트를 설치하지 않고 벤치에서 혹은 나무 아래에서 거주하는 형태였다(사진 2 참조). 텐트를 설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겨울에는 추위로 벤치나 나무 아래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돈이 있는 경우는 사우나나 캡슐호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잠을 청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설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홈리스 당시 하고 있던 일은 일용직이 많았고, 이도 지속적으로 일을 못하고 한 달에 평균 4-5회 정도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3) 임대아파트 입주 이후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은 50대 이상의 중고년령자들이었고, 종사하고 있는 일은 빈칸 수집, 헌책 줍기, 건설 일용직 등이었다. 이전에는 한 달 평균 4-5회 정도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어 임대료와 생활비 부담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활보호를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를 받는 중이거나 신청 중인 경우도 있었다. 입주한 임대아파트의 주택은 대부분 건축연도가 20년은 지난 낡은 목조건물이고, 방 규모도 4.5-6畳 정도로 협소하다. 싱크대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만, 화장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욕실이 없어 근처 목욕탕을 이용하거나 공원이나 외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도쿄도의 경우, 고가의 토지·주택 가격으로 인해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게 되어 도야마 공원에서는 직장과 가까워 일을 다니기 쉬웠지만 아파트로 이주 후 원거리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 경우도 있었다. 임대아파트 입주 후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아 자립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IV. 홈리스 지역생활 이행지원 사업의 가능성

이상 홈리스 지역생활 이행지원 사업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주거수준: 주호면적(싱크대, 화장실 등을 포함한 전용면적)의 경우 단신세대 18㎡, 중고령 단신세대 25㎡, 2인 세대 29㎡로 지정되어 있다. 설비에 대한 내용은 "전용 싱크대와 그 외 가사공간, 화장실, 세면실 및 욕실 등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다(일본건축센터, 2003, p.15).



a) 임대아파트 전경1



b) 복도 전경와 방 배치



c) 임대아파트 내부 1



d) 임대아파트 내부 2

사진 3. 임대아파트(TY氏의 집) 사진(2009.7 촬영)

첫째, 기존의 취로지원을 강조하던 홈리스 지원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주거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하우징퍼스트(Housing First)」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홈리스 지원에 대한 민간단체의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결과인 「주택+생활지원」의 형태가 공적제도로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임대아파트가 방규모, 설비시설의 미비, 통풍·채광, 위생문제, 소음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미확보 등 물리적인 특성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 체재 시설이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주택+서비스'의 통합모델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안정적인 주거확보와 함께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지원 등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도 남아 있다.

참 고 문 헌

1. 中島明子(2005), ホームレスの人々への居住支援と自治体居住政策-ハウジング・ファースト施策と課題-, 都市住宅學, 第53号, pp. 44-47.
2. 中島明子 外3人(2008), ホームレスの人々への支援策としてのハウジング・ファーストに関する予備的研究-その1: 研究の視察及び仮説設定-,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pp.1481-1482.
3. 野村泰洋(2001), 東京のホームレス対策の展開: 自立への新たなシステムの構築へ, 都市住宅學, 第34号, pp.46-50.
4. 日本建築センター(2003), A Quick Look at Housing in Japan, 財団法人日本建築センター
5. 東京都(2007), 東京ホームレス白書II, 東京都福祉保険局
6. 東京都(2009), ホームレスの自立支援等に関する東京都実施計画(第2次), 東京都
7. 板東美智子 外3人(2008)ホームレスの人々への支援策としてのハウジング・ファーストに関する予備的研究-その2: 東京都地域生活移行支援事業における居住支援-,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pp.1483-1484.
8. 稲田七海(2009.9.17), 한국·일본·홍콩 주거복지정책의 동향과 평가,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주택정책세미나 자료집
9. 新宿ホームレス支援機築(2005), 季刊Shelter-less No.25~26.
10. 도쿄도 홈페이지 <http://www.tokyo.metro.jp>